

미얀마 군 수뇌부의 경쟁과 갈등: 후견-수혜관계의 변화*

장 준 영**

I.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미얀마(버마)는 1962년 이래 현재까지 군부가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군부권위주의국가이다. 군부는 내적으로 권위주의적 서열과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이들이 접수한 정권의 성격도 권위주의적이다(김영명 1985: 138). 미얀마 군부의 경우 참여와 경쟁을 제한하는 군부정권의 일반적인 특성과 함께 국제사회에서 자발적인 고립을 정당화한 버마식사회주의(Burmese Way to Socialism)의 고수로 인해 여타 군부정권보다 정권의 폐쇄성은 상대적으로 더 높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군부정권의 작동방식에 대한 학문적 탐구 성과는 고사하고 군부에 관한 객관적이고 일반적인 정보도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제공되지 않는다.

1988년 사회주의체제의 포기와 시장경제체제 도입 등 네윈(Ne

* 본 줄고는 필자의 박사학위논문 “미얀마 신군부와 정치변동: 군부의 정치권력과 민주화전망”(2009)의 제 4장 3절을 수정 보완하여 논문의 형태로 바꾼 것이며, 논지의 질적 향상을 위해 2009년도 한국동남아학회 춘계학술대회(6.19-20, 경상대)에서 발표되었다. 발표당시 토론을 맡아주신 양길현 교수(제주대)와 건설적 비판을 해 주신 박사명 교수(강원대), 심사과정에서 유익한 심사평을 해 주신 세 분의 익명 심사위원께 감사드린다.

** 부산외대 미얀마어과 강사(koyeyint@hotmail.com)

Win) 정권과의 차별성을 기하는 신군부¹⁾가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정권의 폐쇄성은 영속성을 유지한다. 그런데 일군의 학자들은 미얀마 군 수뇌부는 이미 1960년대부터 이념이나 종족성(ethnicity)보다 인적 관계나 구조적 동인들에 의해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으므로 군부는 전적으로 통합된 하나의 제도가 아니라고 지적한다(Callahan 2007: 36; Lintner 1989; Maung Aung Myoe 2009). 그렇다면 과연 군 수뇌부는 어떠한 인적 관계의 구도 속에서 정권을 유지하는가? 또한 군 수뇌부의 균열 조짐이 경쟁과 갈등으로 확대되어 “위로부터의 변화”(transformation)²⁾를 야기할 가능성은 없는가?

민주화 방법론에 관한 연구 중 소위 생성이론(genetic theory)이라고 불리는 접근법은 민주화를 위한 사회·경제·문화적 선결조건을 나열한 기능이론(functional theory)의 가능성을 맹공하며 정치행위자들의 전략적 행태를 강조한다.³⁾ 미시적 수준에서 정치변동과정에 참여하는 개인이나 정치세력들의 합목적성은 합리적 선택(rational choice)으로 귀결되는바 행위자의 이해관계는 주어진 정치적·사회적 상황에 따라 전략적인 유동성을 요구한다.

1) 현재 집권하고 있는 군부는 네윈의 사주를 받아 민주화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하고 집권했으므로 네윈정권의 정통성을 계승하고 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독립운동에 가담한 경험이 없는 서구식 교육을 받은 신세대 장교가 군사평의회나 정부 요직을 차지하기 시작했으므로 군부의 직업의식에는 중요한 변화가 도래했다고 판단된다. 본문에서 논하겠지만 군부의 직업의식 변화가 현 군부체제의 존속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두 시기의 군부는 그 경계를 명확하게 분리될 필요가 있다. 물론 신군부라고 해서 장교의 직업의식이 이전 군부보다 근대화되거나 통치기술이 뛰어나다는 명제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 군부권위주의를 경험한 국가에서 적용된 신군부라는 용어는 이전 군부정권과의 차별성을 두기 위해 조작적으로 정의되었으며, 마찬가지로 필자도 네윈정권 시기의 군부와 구분하기 위해 신군부라고 조작적으로 명명한다.

2) 이 용어는 헌팅턴(Huntington 1991: 109-163)이 제 3세계 국가의 민주화 이해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제시한 용어를 차용한 것이다. 그에 따르면 위로부터의 민주화는 개혁가의 출현, 체제 내에서 개혁가들의 권력 획득, 자유화의 실패, 복고적 정통성, 반대세력의 포섭 등 5가지의 현상을 통해 전개된다.

3) 이에 관한 대표적인 저작은 O'Donnell, Schmitter and Whitehead(1986)이다.

일례로 쉐보르스키(Przeworski 1986)는 하나의 사례로 자유주의를 추진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자본주의적 사회구조분화에 주목하면서 정치변동 과정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정치세력들의 합리적 선택에 초점을 맞춘다. 이들은 주어진 상황 하에 그들의 선택에 따르는 비용과 혜택의 이해관계에 명확하게 반응한다. 그렇지만 미시적 접근은 권위주의 붕괴와 자유화의 과정에서만 일시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시공적 약점이 존재하며, 특히 쉐보르스키의 이론은 후진적 사회를 실험대상으로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론 적용의 보편성이 결여되었고, 거시적이고 역사적 맥락을 간과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한다.

만약 경제적 근대화의 수준이 낮고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세력 확장과 정권을 향한 도전이 미약한 후진사회에서 규칙성에 의거 군부의 균열구도가 지속되고 있다면, 이는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경우의 수는 두 가지 정도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며, 전략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공통적으로 정권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독재자의 이상이 반영된다.

첫째, 일찍이 아래로부터의 도전을 예상하고 권력블록이 자발적인 생존의 활로를 모색하는바 집단적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 강경파(hard-liner)와 온건파(soft-liner)의 대립으로 분열되는 상황을 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주어진 조건, 즉 정권을 향한 시민사회의 도전이 없거나 미약한 상황이라면 군 수뇌부는 추가의 정치적 비용까지 들어가면서 내부적 경쟁구도를 형성할 필요성을 절감하지 못할 것이다. 즉 권력블록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정권에 도전할 가시적인 세력이 목격되지 않는 경우 자발적인 내부균열의 발생 가능성은 극히 낮다. 따라서 첫 번째 가정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⁴⁾

4) 한 가지 지적할 점은 군 수뇌부가 양분되는 시점이다. 생성이론가에 따르면 자유화의 시작을 정권에 도전할 수 있는 시민사회의 출현이라고 지적하고 있으나 그 명확한

둘째, 권력블록 내의 갈등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위적인 균열 상황이 조작되는 경우이다. 일반적으로 권위주의정권은 소수의 엘리트에게 권력이 집중되므로 체제의 경직도는 높은 편이다. 특히 독재자를 겨냥한 역모에 항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군부정권은 불안정한 체제로 유지된다. 이를 돌파하기 위해 독재자는 잠정적인 도전자가 될 수 있는 유력 엘리트들에 대한 분할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이들로부터 충성과 갈등을 동시에 유발한다. 즉 독재자는 해당 파벌의 정치·경제적 자원의 배분 문제를 두고 갈등을 조장함으로써 권력블록의 균열을 유도한다. 따라서 권력블록은 시민사회와의 상호작용 유무에 따라 강경파와 온건파로 양분되지 않는 대신 정치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동거의 행태를 띤다.

이 글은 두 번째 가정을 수용하여 미얀마 군 수뇌부에서 발생하는 파벌적 갈등과 경쟁의 원인, 문제 해결방식을 고찰하면서 정권을 유지하는 군부의 독특한 전략과 방식을 후견-수혜관계의 틀 속에서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양자적 교환(dyadic exchange)에 기초한 후견-수혜관계는 동남아시아의 사회구조와 인적관계를 설명하는데 유용하다(Lande 1965; Scott 1972; 1976; Pye 1985).⁵⁾ 미얀마에서 정치적

분기점에 대해서는 침묵한다(Przeworski 1991: 87). 권력블록의 억압체계나 시민사회의 자율성은 정권의 위기에서 일시적으로 생성되기도 하지만 이미 준비와 생성단계를 거쳐 폭발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즉 사회에 대한 억압의 강도가 높은 정권이라고 할지라도 최소한의 영역에서 시민들의 자율성은 보장된다고 할 수 있다. 권력블록은 반체제집단의 존재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이들이 물리적 교란과 같은 정권을 향한 전유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그 존재를 과소평가할 것이다. 그러나 반체제집단이 정권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대중동원을 실시할 경우 진압의 방법을 두고 권력블록은 와해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아래로부터의 도전이 가시화되지 않는 사회라고 할지라도 권력블록의 와해를 야기하는 시발점은 조직화되지 않은 반체제 대중의 존재이다.

5) 커크브리트(Kerkvliet 2002)는 필리핀에서 발생한 후크(Huk) 반란을 설명하면서 농민들의 집합행동과 후견-수혜관계의 개연성이 약하다고 비판했다. 그에 따르면 각기 다른 계급에 속한 사람들 내에서도 지배와 종속과 같은 계급 내 불평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계급간 호혜성의 원칙이 반드시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맥락에서 피플파워와 같이 엘리트 집단에 대한 국민들의 대대적인 저항은 후견-수혜관계의 틀 속에서 설

파벌주의에 입각한 권력은 철저히 사유화되고 하나의 정보로서 작동하는 전통으로 이어져 왔다(Maung Maung Gyi 1983: 119-125; Mya Maung 1991: 80; Steinberg 2001: 50-52). 또한 하향식 명령체계와 엄격한 위계질서 등 군부만이 배타적으로 가지는 특징은 미얀마 군부의 후견주의를 배가시킨다.

인적 관계에 의한 신군부체제의 파벌적 대립구도가 일정한 주기를 둔 규칙성에 근거하고 있다면 이는 곧 미얀마 군부에서만 발견되는 정권 유지의 독특한 전략으로 규정될 수 있을 것이다. 군부의 경쟁과 갈등이 순환적 주기를 보이고 있다면 갈등의 기원에 대한 해석과 처방도 반복적인 성향을 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위로부터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탐구는 위기에 대처하는 군부의 자세가 일탈적인 행태를 수반할 때 가능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군부의 위기관리 능력도 주요 분석 대상이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군부정권의 성격이나 작동방식에 대한 연구는 군부정권이 퇴진한 후 과거를 재구성하는 시각에서 예측보다 설명에 중점을 두는 방법론에 천착했고, 그로 인해 정권의 역동성에 대한 탐구는 소홀했다고 판단된다. 사회과학자가 연구대상을 설명하려는 궁극적인 이유는 예측을 하기 위해서이며 예측을 보장하지 못하는 설명은 설명일 수 없다(김웅진·김지희 2005: 68-69). 또한 군부정권을 설명하는 결과론적인 시각은 기록물이나 증언을 토대로 하기 때문에 부분적이고 불완전한 설명에 불과하다. 무엇보다도 군부정권이 유지되고 있는 현재의 사실은 정권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선행조건이

명되지 않는다. 스캇(James C. Scott 1972)은 식민화된 동남아 농촌사회에서 전통적인 지주-소작농의 관계 붕괴와 함께 계급적 분화는 생존위기에 처한 농민들이 반란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후견-수혜관계가 근대적이지도 않고 완전히 전통적이지도 않다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Scott 1972, 8), 식민화로 인한 자본주의의 확산이 빠른 속도로 진행된 공간적 장소를 주요 분석대상으로 채택했다. 즉 전통사회에서 근대사회로 발전할수록 후견-수혜관계가 붕괴된다는 논리로 귀결되며, 따라서 스캇이 주장한 후견-수혜관계는 전통적 사회에서 더욱 강력히 작동된다.

될 수 있기 때문에 체제변동이 발생할 경우 군 수뇌부내 갈등은 정권 붕괴의 기원을 추적하는 단초가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얀마 군부 정권의 작동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탐구와 함께 정권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일차적인 사료로서 그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II. 신군부정권의 유형: 형식상의 제도적 정권

1988년 9월 18일,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신군부는 곧바로 과도 군사기구(military junta)인 국가법질서회복평의회(SLORC, State Law and Order Restoration Council)⁶⁾를 출범시켰다. 쿠데타 직후 군부는 스스로의 기능을 내란이 극에 달한 1958-60년 사이 임시 집권한 과도군사정부(caretaker)로 정의했으며, 여타 군부정권처럼 국가의 법과 질서를 회복한다는 논리로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임시적인 통치기구임을 공언했다.⁷⁾ 그러나 군부의 공언은 곧 거짓임이 드러났다. 군부는 1990년 실시된 총선에서 국민민주주의연합(NLD,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이 승리하자 신헌법안 마련에 참가할 구성원 선출이라는 선거의 명분을 제시했다.⁸⁾

6) 1997년 11월 15일 국가평화발전평의회(SPDC, State Peace and Development Council)로 개칭됐다.

7) 군부정권이 초기 군과 민간 엘리트와의 관계, 군의 조직적·제도적 자율성의 영역, 군부가 향유하는 정치·행정적 역할, 군부의 계급과 집단적 의향 등을 변수로 군부정권의 유형 분류의 사례로 채택되었다. 그 기준에 따르면 1962년 당시 미얀마 군부는 사회주의적·과두적 군사체제이다(Perlmutter 1980: 109).

8) 군부는 1990년 총선의 승리를 낙관했거나 패배하더라도 애초에 정권을 이양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 1989년 6월 9일 개최된 제 43차 SLORC 기자회견에서 정부 대변인은 "우리(군부)는 선거가 완료되는 즉시 권력을 이양할 수 없다. 정부는 헌법에 따라 구성되어야 한다. 만약 국가권력이 급조된다면 위태롭고 허약한 정부가 될 것이다. 헌법에 기초한 체계적으로 구성된 정부에 의해서만 안정이 달성될 수 있고..."(Steinberg 2006: 186)라며 군부통치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또한 1990년 4월 12일 킨롱 당시 SLORC 제 1서기는 신헌법이 작성되고 '강력한' 정부가 구성될 때까지 선거이후에도

이론상으로 보았을 때 미얀마 군부는 중재자(moderator)나 후견인(guardian)이 아닌 통치자(ruler)이다.⁹⁾ 통치자 유형은 다시 정권을 장악한 독재자 1인에 의해 통치되는 개인적 정권과 소수의 군 장교들이 구성한 군사평의회에 의해 운용되는 제도적 정권으로 나뉜다. 역사적으로 볼 때 전자는 아프리카, 19세기 남미, 1960년대 아시아 군부권위주의국가처럼 사회의 근대화 수준이 낮아 군부의 규모가 작고 직업화나 직업적 의식수준이 낮은 경우에 나타난다. 흔히 군사 지도자(caudillo)로 명명된 개인에 의해 장악된 정권은 권력 자체가 사유화되어 있고, 독재자를 중심으로 비교적 단합된 힘을 나타내기 때문에 권력층 내부의 저항에 의거 와해되는 경우가 드물다. 대신 독재자가 사망하거나 스스로 권력에서 물러날 경우 체제의 전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O'Donnell and Schmitter 1986: 34-35).

반면 제도적 정권은 민간의 참여와 권력의 사유화를 배제한 채 일부 군 장교가 순환적으로 통치체제를 구현한다(O'Donnell and Schmitter 1986: 34). 이 경우 군부의 제도화와 직업화 수준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군부는 하나의 '제도'로서 정치에 개입한다. 쿠데타에 참여했던 군인사가 교체되는 정권의 2기에 접어들면 제도이자 정부로서 군부는 그들이 지속적으로 통치할 수 있는 정통성과 역량성의 침식정도에 따라 과당적으로 균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성향은 강경파와 온건파로 양분된다.

권력을 장악한 과정은 제도적 정권에 가깝지만 권력을 향유하는 과정은 개인적 정권에 가까우므로 미얀마 군부정권은 두 정권의 유형과 상호 교차된다. 특히 1962-1988년까지는 흔히 네윈 정권으로 정의될 수 있을 만큼 정권의 개인화 정도는 현 정권보다 높다.¹⁰⁾ 네

군부는 정치권에 남을 것이라고 천명했다(Steinberg 2006: 186; Tin Maung Maung Tan 2007: 342).

9) 이 개념은 노드링거(Eric Nordlinger 1977)의 집정관제 유형을 차용한 것이다.

10) 네윈이 절대 권력을 향유한 버마식사회주의시기는 엄격히 두 시기로 구분될 필요가

원 정권기와 마찬가지로 현 정권에서도 군부가 하나의 제도이자 정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민간과 관료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며, 정책집행을 담당하는 중앙기구는 여전히 존재하고 일정수준에서 집단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진다.

군부의 공식적인 의사결정기구인 각 중앙부서 장관, 군사평의회 위원, 13개 지역사령관 등 행정부와 군 수뇌부가 4개월마다 총집결하는 집담회(集談會)이다. 집담회에서는 특별계획수행위원회(Special Projects Implementation Committee)¹¹⁾에서 의결된 국가발전계획을 검토 및 이행하는 업무 이외에 각 지역사령관의 진급, 지역 이동, 보직 변경 등이 결정된다. 통상 지역사령관은 준장-소장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적(功績)이 인정될 경우 국방부 소속이나 군사평의회 위원으로 승진하여 중앙으로 진출한다. 반대로 국방부 소속 인사나 군사평의회 위원 중 일부는 퇴역하여 중앙부서 장차관직으로 중용되는데, 이 경우 최고위층으로 진급할 수 있는 가능성은 구조적으로 봉쇄된다. 중앙부서로 임명되는 경우 퇴역 수순을 거치지만 현역에 준하는 대우는 보장된다.

위와 같은 합의된 제도는 어떠한 예외를 막론하고 보장되지 않는다. 즉 일반적인 의사결정은 제도화된 규칙을 따르지만 군 최고 권력자가 개입할 경우 의사결정구조는 와해된다. 이는 2002-3년까지 군사평의회 위원 중 권력서열 1위의 신임을 받는 장교 45인이 참석하

있다. 제 1시기는 혁명평의회 시기(1962-1974)로 현 SPDC 시기와 마찬가지로 헌법이 부재한 상황에서 혁명평의회에서 공포하는 명령, 선언, 고시 등이 국가 질서의 근간이 되었다. 혁명평의회가 해체된 버마사회주의계획당(BSPP) 시기(1974-1988)는 사회주의 헌법에 따른 법치주의 국가이며, 형식상 민간이 정치권력을 장악하는 정권이였다. 민간정권이 출범이후 네윈은 BSPP 의장직을 유지했으나 헌법에 의해 국가수반인 대통령직은 1981년까지만 맡았다. 즉 제도상으로 볼 때 대통령이 국가권력을 장악하지만 여전히 네윈이 절대 권력을 유지했다.

11) 1995년 공식적으로 설치되었으며 매년 상하반기 각 1회씩, 연 2회 개최한다. 구성위원은 각 중앙부서 장관, 군사평의회 위원, 지역사령관 등이며 국가재건 현황과 향후 계획을 공론화시키는데, 특히 사회간접시설 확충이 주요 의제이다.

여 의사를 결정하는 비공식 기구인 야간학교(*mya kyaung*)의 존재로 증명된다(Tin Maung Maung Tan 이메일 인터뷰 2007/12/24). 2004년부터 야간학교는 공식적으로 폐지되었지만 땅쉐(Than Shwe) SPDC 의장이 비정기적으로 야간에 작전사령부를 방문하여 일부 장교를 소집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관행은 지속되고 있다(현지인 인터뷰 2008/09/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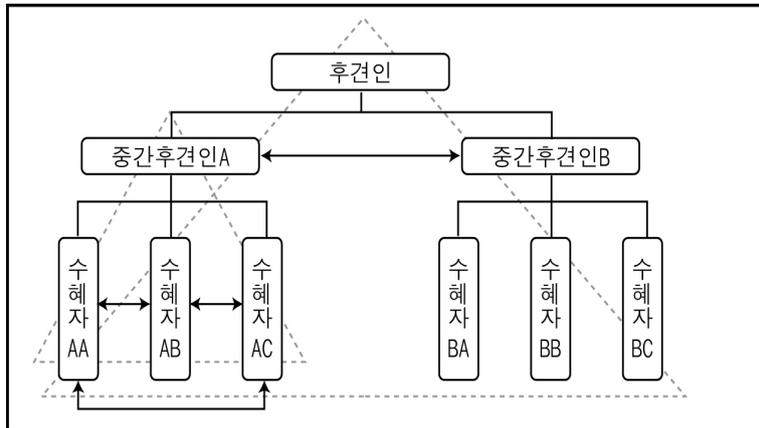
나아가 최고 권력자를 중심으로 소수에 의해 의사결정이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실행된다는 필연성은 없으며, 최종 합의된 사안을 뒤집고 최고 권력자가 독단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예를 들어 점성술사의 점괘에 따른 수도이전이나 군부 내 역쿠데타설 유포는 군부 간 합의의 결과가 아니라 땅쉐의 독단적인 결정이었다. 이 두 사례는 개인적 성향이 강한 정권의 특성을 단적으로 보여주기도 하며, 한편으로 종교에서 파생된 주술적이고 미신적인 문화 요소와 정책결정이 결합한 특징을 지닌다. 즉 정권의 제도화 수준이 전근대적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며 결국 개인적 성향이 짙은 정권이라는 사실을 반증한다.

다음 장에서는 제도적 정권의 외형을 갖추고 있으면서 개인적 정권의 특성이 강화되는 원인을 후견-수혜관계로 설명하고자 한다. 신군부정권은 내원정권과 달리 집단지도체제를 구현하면서 하나의 ‘제도’로서 정치에 개입하고 있으며, 장기간의 군부통치를 통해 직업 의식을 고양시킬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인적 서열 구조인 후견-수혜관계가 유효하다는 측면을 부각시킴으로써 개인적 정권의 성향이 높다는 주장을 강화할 것이다.

Ⅲ. 후견-수혜관계의 변화: 독점적 후견주의에서 경쟁적 후견주의로

후견-수혜관계는 권력, 재력을 가진 자가 그렇지 못한 자에게 물질적, 정신적 수혜를 베풀고 그 대가로 수혜자의 자발적인 보답을 받는 관계로서 상호 호혜성은 높지만 수직적 불평등 관계를 특징으로 하는 인적 네트워크이다. 그것은 비인격적 교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상품을 매개로 하는 관계도 아니고, 무조건적인 충성을 강요하는 일방적인 지배-피지배관계도 아니다. <그림 1>과 같이 한 피라미드 안에는 여러 명의 수혜자가 존재하지만 후견인은 한 명만 존재하며 각 수혜자끼리의 인적관계는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 중요하지 않으며, 각 피라미드간의 개연성도 불분명하다. 즉 수직적 주종관계에 비해 수평적 관계는 느슨하게 체계화된다.

<그림 1> 전통적 개념에서 후견-수혜관계



※화살표(↔)는 '상호 이해관계 없음'을 의미.
 ※출처: 다양한 자료를 근거로 필자 작성.

위와 같은 구조에서 체제(regime)는 후진적으로 제도화된 정치영역에 의해 통제되고, 체계(system)는 정치제도보다 정치적 당사자들에 의해 구조화된다. 그러므로 정치행위는 제도 내의 절차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적관계를 맺고 있는 소수 권력엘리트들에 의해 결정된다(Jackson and Rosberg 1982: 11-12). 이러한 정치행태는 근대화되고 발전된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국가에서 나타나기 쉽다(Jackson and Rosberg 1982: 19-24).

영국은 미얀마를 식민화한 이후 버마족(Burman)과 비버마족 간의 분열을 조장하기 위해 비버마족을 중심으로 군인을 편성했고, 독립 후에도 껌잉족(Kayin, 또는 Karen) 군사령관이 해임되기 전까지 이 구도는 유지되었다. 무장 독립운동에 가담했던 군인들의 정규군 편입 배제와 처우 문제, 껌잉족 중심의 군 사령부와 야전사령부 간의 대결, 공산당과 소수종족 무장단체 등 반정부 세력과 대적할 군대 육성과 이들의 이탈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의 미비 등 민간정권은 군부의 요구를 충족시키기는커녕 군비를 축소하거나 군부의 위상을 평가절하하는 등 이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가중시켰다.

1950년대 들어 네윈이 군을 재건하면서 군부 내 후견-수혜관계는 빠른 속도로 복원되었고, 1962년 쿠데타 이후 주종관계에 의한 군부의 인적 후원관계는 고착화된다. 미얀마 군부에서 후견-수혜관계는 스승-제자관계라는 의미로 서야(saya)-더베(dabei)로 비유되기도 한다. 일례로 대대, 지역사령부 등 야전부대 상급자는 참모급 인사를 발굴하며 스승-제자관계로 발전하며, 일부 상급자는 하급자의 친인척이나 고향 출신 인사들을 선발하여 외연확대를 꾀한다(Win Min 2008: 1020). 쿠데타 이후 외신기자와의 기자회견에서 쏘마웅은 아웅산(Aung San)-네윈으로 이어지는 군부의 계보는 집안의 부모(miba)-자식(thathami)과 같은 관계라고 언급했다(pyan-kya-ye-wun-gyi-ha-na 1990: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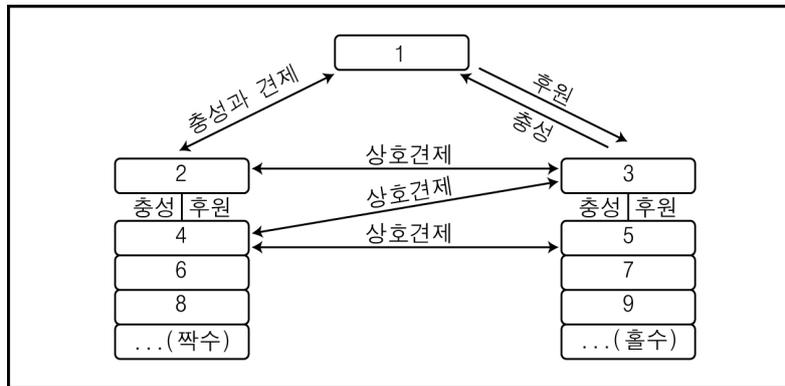
군 수뇌부의 피라미드 구조는 충성과 후원뿐만 아니라 상호견제의 영역이기도 하다. 권력 장악과 유지의 특정한 규칙이나 제도화된 법률이 없기 때문에 잠정적인 경쟁자가 등장할 경우 최고 권력자는 해당 인사에 대한 축출을 감행함으로써 권력을 공고화한다. 사회주의체제로의 노정을 비판한 권력서열 2위 아웅지(Aung Gyi)와 네윈을 압도한 대중적 인기를 누렸던 띠우(Tin Oo)¹²⁾가 각각 1963년과 1976년 축출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최고 권력자는 하급자 집단을 후원하면서도 한편으로 하급자 집단이 연합하여 도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분할하고 통치하는(divide and rule) 전략을 채택한다.

네윈 중심의 독점적 후견주의는 신군부체제가 출범하면서 구조적으로 경쟁적 후견주의로 변화하였으며, 이 구도는 네윈에 의해 확정되었다. 네윈은 현실정치(realpolitik)에서 은퇴했으나 여전히 군부의 최대 후견인으로서 최고 권력자를 압도할만한 막후권력을 행사했다. 1988년 쿠데타의 주체를 선택할 때 네윈은 당시 권력서열 2위인 에코(Aye Ko) 소장보다 전장경험은 풍부하나 정치경험이 일친한 권력서열 3위 쏘마웅을 선택했다(Win Min 2008: 1024). 그러나 1991년 말부터 쏘마웅이 정신착란현상을 보이자 네윈은 땅쉐, 킨능, 묘능(Myo Nyunt) 등 권력서열 2-4위 장교들에게 쏘마웅을 축출하라는 명령을 하달했다(Min Zin 2003). 쏘마웅의 퇴진 이후 네윈은 쏘마웅의 지명

12) 네윈 시기부터 현재까지 군 요직을 차지한 장교 가운데 띠우는 총 세 명으로 각기 부르는 명칭이 다르다. 1974-76년간 국방장관직을 맡았던 띠우는 현재 NLD 부의장직을 맡고 있으며 직책상 계급을 이름 앞에 부치지 않고 우 띠우(U Tin Oo)로 불린다. 띠우의 부인이 일부 서구국가 외교관들의 도움으로 주방용품을 밀수한 사실이 발각되자 네윈으로부터 이혼 압력을 받았으나 띠우가 제안을 거부하자 네윈에게 축출당했다. 공식적 축출 이유는 띠우가 군부 내 쿠데타 음모를 방조한 내란죄였다. 1984년 북한 공작원의 아웅산 묘소 폭파 사건으로 전격 경질된 정보국 띠우는 덩치가 상당히 큰 편이어서 장신(長身)이라는 의미인 랑바지(danbargyi) 또는 MI 띠우로 불렸다. 흔히 소속을 이름 앞에 붙여 동명이인을 구별한다. 나머지 한 명은 킨능에 이어 권력서열 4위로 SPDC 제 2서기였던 띠우 중장으로 2001년 2월 19일, 헬기사고로 사망했다. 사고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지만 킨능의 음모론이 줄곧 제기되었다.

으로 인해 잠정적으로 배제되었던 에꼬 파벌의 땅쉐를 최고 권력자로 지명함으로써 권력 배분의 형평성을 유지했다(Bo Kyaw Nyein 2006). 이와 함께 네윈은 자신을 겨냥해 발생할 수 있는 군부내 역모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자신의 최대 수혜자인 킨농을 권력서열 3위에 배치시킴으로써 집단적 과두체제를 구현했다.

<그림 2> 군 수뇌부의 권력구도(1992-2004)



※숫자는 권력서열을 의미.
 ※출처: 다양한 자료를 근거로 필자 작성.

이로서 네윈이 사망하고 킨농이 축출되기 전까지 군 수뇌부의 권력 피라미드 구조는 <그림 2>와 같이 유형화된다. 구체적으로 국방장관과 군최고사령관(Commander in Chief)으로서 땅쉐는 군부 내 최상위 후견인이 되고, 권력서열 2위 마웅에는 정규군(tatmadaw)의 90%를 상회하는 육군의 통수권을 장악하며, 권력서열 3위 킨농은 군정보국(military intelligence)을 담당한다.

군 인사의 발탁과 축출 등 인적자원 구성에 있어서 네윈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사실이지만 땅쉐의 권력은 네윈의 몰락과 비례관계로 강화되었다. 1992년 4월 SLORC 의장직을 계승한 땅쉐는

공석중인 SLORC 부의장직을 1년 이상 지명하지 않다가 킨농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인사로 마웅에 육군사령관을 낙점하고 해당 직위에 지명했다. 이후에도 땅쉐는 두 인사 간의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중재에 나서면서 이들이 연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미연에 봉쇄했다(Kyaw Yin Hlaing 2008: 169). 네윈과 마찬가지로 땅쉐도 하급자의 충성을 유발하면서 이들이 연합할 수 없도록 하는 분할통치전략을 권력유지의 근간으로 채택한 것이다.

네윈의 건강이 악화된 1999년부터 땅쉐는 독점적인 권력구도를 구축하는데 주력했다. 군 서열상으로 땅쉐는 최고 통수권자이지만 네윈이 자신보다 킨농을 더 후원한다는 사실에 무지하지 않았다. 또한 권력 승계 관행으로 보았을 때 2위보다 3위에 무게중심이 실리고, 쏘마웅처럼 네윈의 지지를 지속적으로 유도하지 못할 경우 언제든 지 축출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 이런 의미에서 2002년 3월에 단행된 네윈 족벌의 축출은 땅쉐 입장에서 정치적 생명을 건 일종의 모험이었다.¹³⁾

이에 만족하지 않고 땅쉐는 2004년 10월 킨농을 축출함으로써 네

13) 2002년 3월 7일, 네윈의 장녀 산다윈(Sandar Win)의 남편인 에쨌윈(Aye Zaw Win)과 그의 세 아들 에네윈(Aye Ne Win), 케네윈(Kway Ne Win), 즈웨네윈(Zwe Ne Win)이 쿠데타 기도혐의로 군정보국에 의해 긴급 체포됐다. 같은 해 9월 26일 법원은 이들이 2006년 3월 27일 땅쉐, 마웅에, 킨농 등 최고 권력자 3인을 납치한 후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전복하려는 음모를 꾸몄다고 결론내렸다. 공판에서 산다윈은 가택연금, 나머지 4명은 모두 사형 판결을 선고했으나 항고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다. 이들의 체포 직후 발표된 정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네윈 일가는 자신들의 사업이 정부정책으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입었고, 이에 대한 반감으로 쿠데타를 기도했다고 한다. 쿠데타에 사용될 군수품의 출처가 불분명하고 군사작전을 수행할 정도로 소량이었다는 점 등 정부가 제출한 증거물도 부실했고, 쿠데타에 동참한 군 내부 공모자도 밝혀지지 않았던 점 등 네윈 일가의 쿠데타 모의는 의문투성이였다. 한 퇴역군인에 따르면 땅쉐와 마웅에는 산다윈을 중심으로 한 네윈 족벌을 축출한 이후 네윈마저도 암살하거나 이에 준하는 결단을 공모했다. 두 명의 합의가 이뤄진 후 킨농에게도 해당 계획안과 승인을 요하는 문서가 접수되었는데, 킨농은 6개월가량 고민하다가 결국 의견 피력을 포기했다. 킨농 입장에서는 자신의 절대적 후견인인 네윈과 그의 가족에 대한 의리를 지킨 셈이지만 땅쉐와 마웅에는 킨농에게 네윈과의 인적관계를 청산할 마지막 기회를 준 셈이다.

원의 유산을 완전히 청산했다. 정부의 축출 사유는 발표 시기에 따라 달랐으나¹⁴⁾ 2005년 7월 권력형 비리 및 부정축재 등 총 8개의 죄명으로 44년간의 실형을 선고 받고 킨농은 가택연금에 처해졌다.¹⁵⁾ 법원이 판결한 형사상 죄명은 군 인사의 축출이 발생할 경우 적용되는 보편적인 죄명에 불과할 뿐 실제로 킨농의 축출 사유는 군부의 갈등 구도를 반증한다.

이건이야 존재하겠지만 킨농이 강경성향 일색인 군 수뇌부에서 상대적으로 온건적인 인물이었다는 사실은 객관적이다. 킨농은 1995년 땅쉐와 아웅산수찌(Aung San Suu Kyi)의 대화를 중재했고, 2002년 아웅산수찌의 가택연금 해제를 주도했으며 1997년부터 비밀리에 NLD와 연정(聯政)을 구상했다. 대외적으로 킨농은 군정보국 내 전략연구소(OSS, Office of Strategic Studies)를 통해 군부의 대외 이미지를 개선하고 아세안(ASEAN) 가입 등 미얀마가 국제사회로 나아가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필자가 면접한 현지인들은 세 명의 최고위 장교들 중 킨농의 대중적 인기를 으뜸으로 꼽으며 유력한 차세대 지도자로 지목했고¹⁶⁾, 심

14) 유력 군 인사를 축출할 경우 정보부(Ministry of Information)는 건강상의 이유를 제시하지만 필요시 음성적 수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른 최종 축출사유를 발표한다. 그러나 축출 사유는 공통적으로 부정부패와 밀매 등으로 국한된다. 군 인사의 축출 과정에 관한 관행은 장준영(2006: 133-134)을 참조하라. 한편, 킨농의 축출 과정과 사후조치에 관한 내용은 장준영(2005), Kyaw Yin Hlaing(2005; 2008)을 참조하라.

15) 이외 킨농 휘하에 있던 정보국 소속 장교 38명을 포함하여 1천 여 명 이상이 즉결 심판을 받아 평균 20년 형, 일부는 100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 킨농의 축출 이후에도 킨농 파벌의 존재감은 당분간 지속됐다. 킨농 축출 후 킨농 수하에 의해 마웅에를 겨냥한 암살 미수사건이 발생했고, 킨농이 군정보국을 장악하고 있었다면 2007년 반정부 시위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군 내부의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국제사회의 비난을 감수하며 무력진압을 선택함으로써 결과론적 입장에서 미얀마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는 더욱 추락했고, 군 내부적으로도 마웅에 파벌의 득세 가능성을 열어두는 등 땅쉐의 리더십은 일시적으로 약화되었다.

16) 2001년부터 2008년 사이 필자가 양공을 방문할 때마다 택시기사를 중심으로 권력 실세를 구두로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50여 명 가운데 40여 명이 킨농을 지목했다. 이들에 따르면 킨농은 실사를 통해 사회간접시설의 신설과 확충에 관심을 가지는 등 국민들의 실생활에 깊숙이 관여했다고 한다. 반면, 땅쉐와 마웅에는 대중적인

지어 동북부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마웅에의 존재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현지인도 있었다. 그러나 대중적 이미지와 달리 군부 내 킨농의 위상은 그리 높지 않았다(Kyaw Yin Hlaing 2008: 169). 군정보국을 중심으로 정규군을 압도할 수준만큼 비대해진 킨농의 권력 피라미드는 땅쉐와 마웅에의 위기의식을 자극했고, 결국 축출의 대상이 된 것이다.

킨농의 독단적인 행보가 땅쉐, 마웅에와 차별화되지만 자유화의 서막이었다고 단정 짓기는 힘들다. 킨농이 개혁주의자로 비춰지기 위해서는 권력 4, 5위를 포섭하여 개혁주의 블록을 형성해야 했을 것이다. 대신 킨농은 자신의 천거로 발탁된 장교를 개혁에 비협조적이고 부패했다는 이유로 축출하는 등 상급자의 인사결정 관례를 답습했다. 장외세력, 즉 시민사회간의 연합도 목격되지 않았고, 민주화 운동가와 장외정치인들의 시각도 킨농을 포함한 군 수뇌부는 동일한 목적을 가진 배타적 이익집단으로만 간주한다. 결국 킨농은 네윈의 후광과 입지를 공고하게 다져준 군정보국을 배후로 정치·경제적 자원의 배분 경쟁에서 자신이 속한 권력 피라미드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인물이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2004년 킨농이 축출되기 전까지 신군부체제는 3인의 군 인사가 분업체계를 형성하는 경쟁적 후견주의체제였다. 이들은 내부적으로 각각의 피라미드 수장으로 후견체제를 공고히 하는 한편, 외부적으로 각 피라미드를 견제하는 형국을 유지했다. 그러나 네윈의 사망이후 킨농의 축출과정을 볼 때 경쟁적 후견주의는 다시 독점적 후견주의로 회귀하는 양상을 띤다. 다음 장에서

인물이 아닐뿐더러 실제로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펼치지 않는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실제로 킨농은 유명 영화배우나 가수보다 더 텔레비전에 자주 출연하는 대중 인지도가 높은 인물이었다. 군부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가 개방되지 않은 상황에서 군 수뇌부 구성원에 무지한 일반 국민들이 간접적으로나마 대중 앞에 자주 출현하는 군 인사를 정권의 권위자로 판단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이치인지도 모른다.

는 잔존한 땅쉐 파벌과 마웅에 파벌의 경쟁구도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IV. 후견-수혜관계의 재편: 독점적 후견주의의 회귀?

땅쉐 입장에서 킨농의 축출은 잠재적인 정적의 제거로 귀결됐지만 동시에 마웅에 파벌을 견제해야하는 정치적 부담을 져야했다. 땅쉐는 중도적인 성향의 떼잉세잉(Thein Sein) 총리대신 쉘망(Shwe Mann)¹⁷⁾ 합동참모장을 서열 3위로 선택하면서 자신을 중심으로 한 파벌의 재편과 공고화에 천착했다. 야전사령관 재직당시 제자라는 인적 관계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에서 땅쉐는 쉘망을 권력서열 3위로 지명한 것 같다. 첫째, 합동참모장을 최측근으로 둘 경우 군대의 효율적인 통제가 가능하며, 이를 토대로 만약에 발생할 지 모르는 군부 내 모반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미얀마 정규군은 육군을 중심으로 편재되어 있고 그 수장이 마웅에이지만 지휘체계는 지방(지역사령부)이 중앙(국방부)에 종속된다. 국방부 소속의 합동참모장은 각 군을 통제 및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평시에는 업무수행 면에서 육군사령관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지위를 누린다.

둘째, 네원과 마찬가지로 땅쉐도 하급자에 대한 분할통치전략을 채택함으로써 하급자들의 연대로 인한 권좌 박탈의 가능성을 방지

17) 1989년 까렌민족연합(KNU, Karen National Union)의 자체군대인 까렌민족자유군(KNLA, Karen National Liberation Army)과의 전투에서 공적을 쌓아 투라(Thura: 용맹) 작위를 받은 후 2년 만에 소령에서 대령으로 진급했다. 2007년 9월 미얀마 문제 해결을 위해 입국한 유엔특사 감바리(Ibrahim Gambari)와 군 최고위층 회담에서 땅쉐는 쉘망을 마웅에에 이어 두 번째로 소개함으로써 그가 최고 권력자 중 한 명이라는 사실이 대중에게 최초로 공개됐다.

하고자 한다. 쉘망은 쏘마웅이나 마웅에처럼 풍부한 야전경험을 겸비했지만 대중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은 인물로 행정 및 인사관리 경험이 일천하고 킨농처럼 대중적인 이미지를 구축할 가능성도 적기 때문에 군부 내에서도 독자적인 인적 피라미드를 발전시킬 능력이 결여된 인물이다.

쉘망의 성향과 경력이 땅쉐를 겨냥한 모반으로 발전될 가능성은 낮지만 쉘망을 배제한 인사들이 연합할 경우 땅쉐의 입지는 좁아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마웅에의 정치적 기술력이 쉘망을 능가하여 권력 서열 4위인 떼잉쎄잉 총리를 통제하거나 그와 연대하고 쉘망이 떼잉쎄잉을 견제하는데 실패할 경우를 가정할 수 있다. 땅쉐는 그에 대한 대비책으로 권력서열 5위에 대한 진급을 단행했다. 2009년 국군의 날을 기해 띠아웅땡우(Tin Aung Myint Oo) SPDC 제 1서기가 대장으로 진급하여 마웅에, 쉘망과 함께 수평적 계급 대열에 합류했다. 땅쉐는 쉘망과 띠아웅땡우의 경쟁을 부추기면서 마웅에 파벌을 적극적으로 견제할 것이며, 최종적으로 띠아웅땡우의 축출 가능성을 타진하며 마웅에 파벌의 약화를 목적으로 한다(Min Lwin 2009).

현재 상황에서 킨농 파벌의 축출은 마웅에 파벌의 약진을 가져다 주었으며, 이제 권력 피라미드는 각 피라미드간의 기능과 역할에 따라 다시 균형을 유지하는 경쟁적 구도로 접어들었다. 다시 말해 직책에 따라 삼각구도를 형성하던 체제와 달리 킨농 축출 이후 땅쉐는 구 군부를 매개로 경제권을 장악하는 한편, 마웅에를 비롯한 근대식 군사교육을 수확한 군 인사들은 군사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등 기능적 분화의 과정을 걷는다.

개방경제 도입 이후 땅쉐는 국내 최대의 민간기업인인 떼자(Tay Za)를 적극적으로 후원한다.¹⁸⁾ 떼자가 운영하는 투트레이딩(Htoo

18) 땅쉐가 떼자를 후원하는 특별한 이유는 명확하지 않지만 현지인들에 의하면 땅쉐와 부인인 짜잉자잉(Kyaing Kyaing)이 인도와 중국 혈통 기업인을 선천적으로 싫어하는

Trading)은 2006-2007년 회계연도 기준 국영기업 및 합작기업을 포함한 미얀마 총 수출의 5위, 민간기업 분야에서는 1위를 차지했다(Myanmar Times 2007/6/4-10). 쉘망의 장남인 아웅뻬망(Aung Thet Mann)은 쌀 수출을 독점하는 무역회사 에쉐와(Aye Shwe War)를 운영하면서 투트레이딩의 이사직도 겸직하고 있다.¹⁹⁾ 네윈 정권과 SLORC 정권 초기 당시 중역을 맡았던 퇴역 장성들이 이사진을 구성한 미얀마 경제지주공사(UMEHL, Union of Myanmar Economic Holdings Limited)는 외국인직접투자(FDI)를 독식하며 군부의 경제권 장악을 강화한다.

땅쉐는 경제영역에서 마웅에의 권한을 축소하기 위해 2007년 수출입 허가를 관장하는 무역평의회(Trade Council) 의장을 마웅에에서 떤 아웅뻬우로 교체했다(Win Min 2008: 1035). 땅쉐는 마웅에에게 집중된 각종 이권을 분산하고 하급자에게 기회를 부여하여 같은 파벌 내 주종관계의 경쟁을 유발하고자 한다. 또한 땅쉐 파벌이 이권을 독식할 경우 반대 파벌의 박탈감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자원 배분의 일환으로 마웅에 파벌의 기득권을 보장한 것으로 분석되기도 한다.

이외에 땅쉐는 킨뉘이 담당했던 사회통제의 기능을 접수했다. 군정보국이 해체된 뒤 그 기능이 축소되어 신설된 군무안보실(OMAS, Office of Military Affairs Security)의 수장으로 땅쉐의 처조카인 민스웨(Myint Swe) 중장이 내정됐다. 땅쉐 파벌인 테우(Htay Oo)가 사무총장직을 맡고 있는 연방단결발전연합(USDA, Union Solidarity and Development Association)은 대중동원을 기반으로 성공적인 정당으로의 탈바꿈을 통해 2010년으로 예정된 총선의 승리를 도모하고자 한다.

한편, 마웅에는 각 부대 대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중령급 인사들

기질이 있다고 하는데, 떤지는 순수 버마족이다. 떤지는 땅쉐를 포함한 땅쉐 가족과 돈독한 친분관계와 물량 공세를 통해 견고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19) 이외에도 차남인 토나잉망(Toe Naing Mann)은 양공지역 굴지의 부동산업자인 킨쉐(Khin Shwe)의 사위가 되어 배우자인 제진랏(Zay Zin Latt)과 제거바(Zay Gabar)라는 부동산 및 건설회사를 경영 중이다.

을 적극적으로 포섭했다(Bo Kyaw Nyein 2006). 마웅에는 네윈 정권기 군 수뇌부를 구성했던 간부후보학교(OTS, Officer's Training School)²⁰⁾ 출신과 달리 근대식 군사교육을 받은 군사관학교(DSA, Defence Service Academy)²¹⁾ 1기 출신으로 신군부를 대표하는 좌장급 인사이다. DSA출신 인사들이 주목받기 시작한 시기는 1976년 군 수뇌부를 겨냥해 발생한 쿠데타²²⁾ 이후로 1959년 1기가 임관했던 점을 감안할 때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다(Selth 2002: 262). 그러나 네윈 정권기에는 실제로 군 요직에 진출한 DSA 출신 인사는 없었고, 1990년대 후반이 되어야 이들의 약진이 가시화되었다. 일례로 1999년 기준 사령관급 장교 88명 중 45명이 DSA 출신이었다(Selth 2002: 263).

20) 육군 ROTC 성격의 OTS는 1948년 메묘에 개교, 이듬해 1월부터 교육을 시작했으나 그 기원은 일본 점령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교육과정은 대학을 졸업한 후 입교하여 군 중간 지휘체계에서 활용될 전략과 기초 군사훈련 등이고, 교육기간은 9개월 정도로 비교적 짧은 편이다. 1962년까지 진급에 임박한 군인들이 OTS에 입학했고, 네윈 정권 출범이후 대학을 졸업하지 못한 장교 후보생들도 OTS를 통해 임관하는 등 OTS는 네윈 정권의 장교양성기관으로 급부상했다(Selth 2002: 83).

21) 미국의 웨스트포인트(West Point), 영국의 샌드허스트(Sandhurst)처럼 근대군사교육을 통해 최정예군인을 양성한다는 목적으로 1955년 8월 1일 바투(Bahtoo)에서 개교하였고 1957년 6월 1일 메묘(May Myo, 1989년 뽕우르윙 Pyin Oo Lwin으로 개칭)로 이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16-19세 사이 고등학교 교육을 이수한 남성만이 입학할 수 있으며 편입학은 허용되지 않는다. 군사교육 위주로 교과가 편성되어 있으나 컴퓨터 공학을 필수과목으로 채택해야 되며 일반 대학처럼 전공별 학과목이 개설되어 있다. 학위는 문학사와 이학사로 구분되며, 4년이던 교육기간이 1991년부터 3년으로 축소됐다. 후보생들은 아노여타(빨강색), 버잉나웅(파랑색), 아웅제야(노랑색) 등 자체 대대를 편성하여 실전 감각을 높이는 군사훈련을 실시한다(Selth 2002: 84; Hla Shwe 2007: 63-64). 이외에도 군의관대학, 군기술대학, 군간호대학 등 전투병과를 지원하는 고등교육기관이 각각 1992년, 1993년, 2000년 설립되었다. DSA를 제외한 기타 근대식 군사교육 학교는 1990년대 말부터 임관 장교를 배출했기 때문에 이들 학교 출신 인사가 주요 권력층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몇 십 년은 더 걸릴 것이며, 병과의 특성상 고위직으로 진출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근대식 군사교육을 받고 군 운용 능력을 한층 끌어올리는데 주역이 된다는 자부심과 시대정신은 군부의 세대교체에 중요한 동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22) 응저핑(Ohn Gyaw Myint) 당시 육군 대위를 비롯한 7명의 소장파 장교가 네윈, 산유, 띠우 정보국장 등 최고의 군인사를 암살하려다가 실패했고, 국방장관이었던 띠우 소장도 여기에 가담했다는 음모설이 제기되어 네윈으로부터 축출 당했다(Martin 1977: 155).

DSA의 약진은 <표 1>과 같이 각 지역사령관 분야에서 두드러지는데, 군사평의회로 진출한 장교가 대부분 지역사령관 출신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땅쉐, 마웅에, 쉘망, 떼잉쎄잉, 쏘윈(Soe Win, 2007년 백혈병으로 사망), 띠아웅땡우 등 전·현직 권력서열 5위 이내 인사들은 모두 지역사령관 출신이다.²³⁾ 2001년 11월 단행된 대규모 인사이동에서 12명의 지역사령관 중 10명이 군사평의회로 진출했다. 특히 2005년 6월 기준 DSA 출신 지역사령관은 8명으로 늘어났고, 2008년 4월에는 12명의 DSA 출신 장교가 지명됐다. 이들은 1970년대 중반 DSA 16-20기로 졸업한 50대 군 인사들로서 전형적인 신군부의 직업의식을 갖추고 있으며, 인적 관계에서 마웅에에 대한 충성심이 월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반해 2007년 4월 기준 OTS는 101기 임관식을 치렀으나 현직 군사평의회와 지역사령관에 임명된 OTS 출신 장교는 지속적으로 감소했다.²⁴⁾ 신군부 집권 이후 DSA 출신 장교가 OTS 출신 장교를 대체하고 있으며,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향후 국방부를 제외한 야전사령부는 DSA 출신의 독점이 예상된다. 즉 출신학교만으로 볼 때 마웅에 파벌이 땅쉐 파벌을 압도할 가능성이 높다.

23) 지역사령관 중 양공지역사령관은 중앙으로 진출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후보이므로 어느 파벌이 해당 직위를 차지하느냐에 따라 파벌의 위상이 달라질 것이라고 예견된 바 있다(*The Irrawaddy* 2005). 2006년 창군된 네뻬도지역사령부도 군부에게 있어 심장파와 같은 지역이다. 초대 사령관에는 현직 중부지역사령관으로 근무 중인 띠웅웨 소장에서 2006년 5월 웨르윙 소장으로 교체되었다. 띠웅웨가 쉘망의 후원을 받는 인물이고, 웨르윙이 마웅에 파벌임을 감안할 때 지역사령부는 이미 마웅에 파벌에 의해 장악당하고 있는 셈이다.

24) 가장 최근 임관한 OTS 출신 지역사령관은 61기 땡쑤(Myint Soe) 준장으로 2007년 11월 북서부지역사령관으로 발탁되었다. 2008년 2월 기준 36개에 달하는 여단급 이상 부대의 지휘관 중 DSA 출신 장교가 16명인데 반해 OTS 출신 장교는 7명에 불과하다(Maung Aung Myoe 2009: 232).

<표 1> SLORC/ SPDC 시기 지역사령관별 출신교

지역	시기 및 출신교					지역	시기 및 출신교				
	88.9 ¹⁾	95. 3 ²⁾	97.11 ³⁾	05.6 ⁴⁾	08.4 ⁵⁾		88.9	95.3	97.11	05.6	08.4
양공	묘농 OTS 18	묘농 OTS 18	킨마웅판 OTS 31	윈스웨 DSA 15	홀라태잉 DSA	남서부	땡아웅 OTS 12	땡홀라 DSA 3	쉐망 DSA 11	땡아웅 DSA 18	쨌스웨 DSA 21
네째도	2006년 창군				웨르윙 DSA 20	동남부	쏘땡 OTS 26	켓제잉 OTS 29	땡아웅 DSA 18	쏘나잉 DSA 17	멧나 잉윙 OTS
서부	마땡 OTS 9	윈땡 OTS 27	아웅트 웨 OTS 29	킨마웅땡 OTS 1974년	마웅웨잉 DSA 20	동부	마웅에 DSA 1	쏘땡 OTS 29	마웅보 OTS 31	에땡 DSA 15	따웅에 DSA 20
중부	땡지 DSA 1	쨌망 OTS 25	에땡 DSA 15	킨조 OTS 1975년	땡웅웨 DSA 22	동북부	마웅땡 OTS 18	에조 OTS 28	땡아웅 땡우 DSA 12	땡홀라잉 DSA 17	아웅 땡땡 DSA 20
북부	쨌바 OTS 21	쏘르윙 OTS 26	쨌윈 OTS 30	마웅마웅 스웨 OTS 47	웅땡 DSA 17	북서부	1990년 창군	홀라땡 스웨 OTS 30	쏘윈 DSA 12	따에 DSA 16	땡쏘 OTS 61
트라이 앵글	1996년 창군		땡에잉 DSA 9	땡아웅 홀 라이 DSA 19	땡아웅 홀 라이 DSA 19	남부	에따웅 OTS 13	쏘땡 OTS 26	땡에 DSA 9	쨌꼬 DSA 19	쨌꼬 DSA 19
해안			쨌마웅 (2001사령 DSA 12	웅땡 DSA 17	킨조우 OTS	합	OTS	7/9	9/10	4/12	4/12
						DSA	2/9	1/10	8/12	8/12	10/13
						계	9/9	10/10	12/12	12/12	13/13

1) *Burma Alert*, 1992, Vol. 3(February).
 2) *Burma Alert*, 1995, Vol. 6(February).
 3) 필자 조사. 4) <<http://www.irrawaddy.org/aviewer.asp?a=447&z=14>>.
 5) <http://www.irrawaddy.org/research_show.php?art_id=447>.

그러나 현 수뇌부의 균열구도를 학연관계로 단정 지을 수 없는데, 그 이유는 인적 추종관계가 학연관계보다 우선하기 때문이다.²⁵⁾ 앞서 본 것처럼 쉐망은 DSA 출신이지만 과거 지역사령부 근무 당시 땅쉐의 참모였고, 땅쉐는 동부지역사령관 재직당시 땡아웅땡우를 발굴하여 스승(saya)-제자(dabei)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2008년 6월 단행된 지역사령부 인선에서도 땅쉐의 참모였던 쨌스웨(Kyaw Swe, DSA 21기) DSA 학장이 남서지역사령관으로 발탁되었다(*The Irrawaddy*

25) 땅쉐의 처조카인 윈스웨나 마웅에의 처남인 마웅마웅스웨(Maung Maung Swe)의 사례는 혈연관계에 의한 족벌체제로서 일탈적인 사례이다.

2008). 현재 권력구도에서 미얀마 영토를 군부의 권력지형으로 분류하면 남서지역은 땅쉐 파벌, 동북부지역은 마웅에 파벌이 장악하고 있다.

킨농의 축출 이후 땅쉐 파벌과 마웅에 파벌의 경쟁구도도 정치적 자원의 배분을 두고 전개된다. 신군부정권 초창기 DSA 출신 군 인사들은 내원정권기 장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유적이고 개혁적인 성향이라고 평가됐다(Lintner 1989: 11). DSA 출신 장교들은 생도시절이나 야전 중대대 지휘관 재직 당시 사리사욕만 채우는 원로장교들을 강력히 비판하지만 이들도 장성급 장교대열에 진입할 경우 전임자들의 전철을 밟으며 모두 부패해진다(Aung Zaw 인터뷰 2007/08/16). 말하자면 군 인사가 권력층에 진입할 경우 시민사회와의 연합을 통해 자유주의자로 변신하여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려는 방안을 채택하기보다 전임자들처럼 국민을 억압하는 전략에 길들여진다. 서방 외교관은 “그들은 몽치지 않으면 따로따로 목 매달릴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언급했다(Lintner 2007: 252). 즉 군부는 그들이 저지른 만행을 청산하기보다 현행체제를 유지하려는데 급급하고, 이런 이유로 개혁가로 비춰지는 장교의 등장 가능성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군부-군부, 군부-국민 간의 불신과 긴장구도가 지난 40년간 이어져오고 있는 것이다.

한편, DSA 출신 지역사령관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정형화된 의사결정이 땅쉐의 독단에 의해 좌우되므로 땅쉐의 독점력은 여전히 유효한 것처럼 보인다. <표 1>에서 2005년, 2008년의 지역사령관 직위는 위수지역이 변경되거나 또는 해당 직위가 유임된 것 이외에 별다른 변화를 찾아볼 수 없다. 2007년 이전까지 땅쉐와 마웅에는 인사이동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해당 인사의 유임을 확정했지만(Bo Kyaw Nyein 2006), 2007년 8월-9월 반정부 시위 이후 4개월마다 실시하는 집담회가 2008년 6월을 제외하고

모두 취소되었다. 더욱이 2007년 반정부 시위 당시 마웅에가 아웅산 수찌와의 밀담을 추진하거나 강경진압을 반대했다는 전례를 비추어 볼 때 오히려 마웅에에 대한 땅쇄의 불신 정도가 높아졌다.

그렇지만 땅쇄는 마웅에를 축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마웅에 파벌에게 분배된 권력 자원을 강탈할 경우 권력의 독점이 아니라 마웅에 파벌의 집단적 도전과 저항이 예측되기 때문이다. 승자독식(winner-take-all)체제는 미얀마 군부에서 허용될 수 없는 약속된 관행이지만 땅쇄가 급사(急死)하지 않는 이상 마웅에가 권력서열 1위로 등극할 가능성도 낮다. 권력은 사유화되지만 세습되지 않는 권력계승의 특성상 땅쇄는 자신이 권력서열 1위에서 견재 하는 동안만 견고한 피라미드체제를 유지할 것이다. 따라서 땅쇄는 쉐망과 뎀스웨를 중심으로 인적 후원체계를 유지하면서 마웅에 파벌에 대한 잠정적인 우위를 점할 것이다.

다만 네윈의 경우와 같이 권좌에서 물러난 후 막후권력을 추구하고자 한다면 자신의 입지를 공고화한 후 후속 파벌에 대한 무한경쟁을 유도할 것이다. 이 경우 현 권력구도 이후의 군 요직은 쉐망을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반면, 마웅에 파벌은 지역사령부를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DSA 출신 신세대 장교가 지속적으로 배출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군권을 중심으로 한 파벌 강화는 고무적으로 보인다.

V. 요약 및 전망

외부에서 관망할 때 군부 내 파벌 경쟁이 가시화되거나 역쿠데타가 발생하는 등 혼란과 무질서가 목격되지 않기 때문에 미얀마 군부 정권은 상당히 안정적인 권위주의체제로 보일 수 있다. 더군다나 군

부가 독립의 주체로서 역사적 소명의식을 전승하고, 민간정권기 당시 분리 독립을 요구하는 소수종족, 공산주의자, 국민당(KMT) 세력의 소탕을 담당했다는 사실에서 군부의 응집력과 단결력은 어느 군부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군 수뇌부의 균열구도는 정치적 자원의 배분을 두고 독점적 후견주의-경쟁적 후견주의-독점적 후견주의와 경쟁적 후견주의의 공존 상태로 변화하면서 미얀마 군부는 단일하게 통합된 제도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다. 1990년대부터 시작된 집단 지도체로서 경쟁적 후견주의는 군 수뇌부가 배타적이고 독자적인 권력 피라미드를 구성하는 구조적 환경을 유인했다. 후견제도를 제공한 네윈이 사망하고, 킨농이 축출된 후 군부의 경쟁구도는 경제권과 군권 등 기능적인 측면에 따라 양분되고 있다. 특히 킨농의 축출로 인해 상대적으로 마웅예를 위시한 DSA 출신 인사가 약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신군부정권은 스스로 붕괴할 가능성이 희박한 안정적인 체제라기보다 인적 추종관계로 고착화된 파벌이 세력균형(balance of power)을 유지하는 경직된 구조로서 자의적 또는 타의적으로 권력 피라미드의 궤도에서 파벌이 이탈할 경우 정권붕괴의 위험성이 발생하는 불안정한 체제이다. 킨농의 축출과정과 이후 권력 피라미드의 복원과 정에서 발생한 일시적 혼란이 이를 증명한다. 한편, 정권의 유형은 네윈 정권과 마찬가지로 개인적 성향이 강하다. 신군부정권은 구조적으로 제도적이지만 권력은 철저히 사유화되기 때문에 권력 계승의 원칙은 규칙성과 합의된 제도에 근거하지 않는다. 개인적 정권의 최후는 제도적 정권보다 더욱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는바 절대 권력을 향유할 수 있다면 독재자는 정권을 작동시키는 장치와 제도의 일시적 혼란마저도 감수한다.

이 연구를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객관적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얀마 군부체제는 호혜성에 입각한 후견-수혜관계의 틀 속에서 유

지되며, 권력 장악의 주체에 따라 권력피라미드의 크기는 탄력성을 보인다. 분명한 사실은 군부정권이 개시된 이후에도 미얀마 군부는 전적으로 통합된 하나의 권력피라미드를 향유했다기보다 서열 3위 권 안에 드는 인사가 후견인이 되는 독자적인 권력피라미드가 형성되었고, 최고 권력자의 선택에 따라 피라미드의 부침이 발생했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지켜짐으로써 파벌 간 구도는 평행선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둘째, 군부의 내적 균열은 반체제집단과의 경쟁에서 생존하려는 자구책이라기보다 반대 파벌에 대한 비교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며, 해당 파벌의 정치적 자원의 확보를 극대화하려는 대결이다. 권력피라미드의 강도가 높아질수록 해당 파벌의 정치적 자원은 극대화되며, 이러한 논리를 거스를 경우 축출의 대상이 된다. 역사적으로 반복된 미얀마 군부의 문제해결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군부는 2010년에 예정된 총선을 앞두고 있다. 2008년 채택된 헌법은 대통령을 국가수반으로 하는 공화제를 표방하고 있으며, 군부가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정권은 유사민간화를 노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될 경우 개인적 정권의 특성은 더욱 강화될 것이며, 그 과정에서 군부 직업의식의 발전 정도에 따라 정치·경제적 자원의 배분 문제를 두고 군 내부의 갈등과 경쟁은 더욱 가시화될 것이다.

군부를 대체할 대안세력이 존재하지 않고, 민주화를 달성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조건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 하에 단기적으로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기대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만약 군부가 아닌 반정부 세력이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이익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회구조상 일정 기간 내 사회혼란은 불가피할 것이다. 1988년 민주화운동과 2007년 반정부 시위의 실패 원인처럼 통합적이고 조직적인 반체제집단이 등장하지 않을 경우 다시 군부가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농후하다. 따라서 단기적 수준에서 조직적인 반정부 단체

의 저항이 없는 경우에 한해 미얀마 정치체제의 변화는 군 수뇌부의 균열에서 비롯된 군부의 와해가 발생할 때 가능할 것이다. 다만 군부의 성격상 강경파와 개혁파의 대결보다 정치적 자원의 배분을 두고 경쟁할 가능성은 높으며 이 구도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과도군사기구, 후견-수혜 관계, 경쟁적 후견주의, 독점적 후견주의, 권력 피라미드, 2010년 총선, 미얀마

〈참고문헌〉

- 김영명. 1985. 『제3세계의 군부통치와 정치경제: 브라질·한국·페루·이집트의 비교연구』. 서울: 한울.
- 김웅진·김지희. 2005. 『정치학 연구방법론: 경험과학연구의 규준과 설계』. 서울: 명지사.
- 장준영. 2005. “미얀마의 정치적 동학과 가능성: 군부의 갈등과 재편을 중심으로.” 『이문논총』 25: 173-202.
- _____. 2006. “미얀마의 부정부패: 보편성과 특수성 사이에서.” 『한국국제지역학회보』 7: 109-139.
- _____. 2009. “미얀마 신군부와 정치변동: 군부의 정치권력과 민주화 전망.” 한국외대 대학원 국제관계학과 박사학위논문.
- Bo Kyaw Nyein. 2006. "Understanding the SPDC General." *Mizzima News* January 26.
- Burma Alert*. 1992. Vol. 3(February).
- Burma Alert*. 1995. Vol. 6(February).
- Callahan, Mary P. 2007. "Of *kyay-zu* and *kyet-su*: the military in 2006." Monique Skidmore and Trevor Wilson (eds.), *Myanmar: The State, Community and*

- the Environment*. pp. 36-53. Canberra: The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Press.
- Hla Shwe(Bo-Gyi)[홀라쉘(대위)]. 2007. *Tet-Lan-A-Htwe-Due-Ba-Hu-Thu-Ta, Hmat-Su Hni-Htaung-Hkun-Kbni, Hni-Htaung-Hkun-Sbi*[고등일 반상식 모음집, 2007-2008]. Yan-Gon: Shwe-Mi-Tha-Zu-Sa-Pe[양 공: 황금가족서적].
- Huntington, Samuel P. 1991. *The Third Wave: Democratization in the Late Twentieth Century*. Norman: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 Jackson, Robert H and Carl G. Rosberg. 1982. *Personal Rule in Black Africa*. Berkeley: University of Berkeley Press.
- Kerkvliet, Benedict J. 2002. *The Huk Rebellion: A Study of Peasant Revolt in the Philippines*. 2nd ed. Lanham: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Inc.
- Kyaw Yin Hlaing. 2005. "Myanmar in 2004: Another Year of Uncertainty." *Asian Survey* 45(1): 174-179.
- _____. 2008. "Power and Factional Struggles in Post-Independence Burmese Governments." *Journal of Southeast Asian Studies* 39(1): 149-177.
- Lande, Carl H. 1965. *Leaders, Factions, and Parties: The Structure of Philippine Politic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Lintner, Bertil. 1989. "An Army Divided?" *FEER (Far Eastern Economic Review)*. 144(19).
- _____. 2007. *Aung San Suu Kyi and Burma's Struggle for Democracy*. 이희영 옮김. 2007. 『아웅산수찌와 버마군부: 45년 자유 투쟁의 역사』. 서울: 아시아 네트워크.
- Martin, Edwin W. 1977. "Burma in 1976: The Beginnings of Change?" *Asian Survey* 17(2): 155-159.
- Maung Aung Myoe. 2009. *Building the Tatmadaw: Myanmar Armed Forces Since*

1948. Singapore: ISEAS.
- Maung Maung Gyi. 1983. *Burmese Political Values: The Socio-Political Root of Authoritarianism*. New York: Praeger.
- Min Lwin. 2009. "General's Promotion Signals Power Struggles at the Top." *The Irrawaddy* March 30.
- Min Zin. 2003. "Sorting the Tatmadaw after Ne Win." *The Irrawaddy*. 11(1).
- Mya Maung. 1991. *Burma Road to Poverty*. New York: Praeger.
- Myanmar Times* 2007 June 04-10.
- New Light of Myanmar* 2007 October 24.
- Nordlinger, Eric E. 1977. *Soldiers in Politics*. Englewood Cliffs: Prentice Hall.
- O'Donnell, Guillermo and Philippe C. Schmitter (eds.). 1986. *Transition from Authoritarian Rule: Tentative Conclusions about Uncertain Democracies*. Baltimore and London: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Permuter, Amos. 1980. "The Comparative Analysis of Military Regime: Formations, Aspirations, and Achievements." *World Politics* 33(1): 96-120.
- Przeworski, Adam. 1986. "Some Problems in the Study of the Transition to Democracy." In Guillermo O'Donnell, Philippe C. Schmitter and Laurence Whitehead (eds.), *Transition from Authoritarian Rule: Comparative Perspectives*. pp. 47-63. Baltimore and London: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_____. 1991. *Democracy and the Market*. 임혁백 · 윤성학 옮김. 1997. 『민주주의와 시장』. 서울: 한울.
- Pyan-Kya-Ye-Wun-Gyi-Hta-Na[정보부]. 1990. *Ti-Htaung-Ko-Ya-Sit-Se-Sit -Hku-Ni, Set-Tin-Ba-La Se-Hni-Yet-Ne-Dwin Ya-Han-Shin-Lu-Pyi-Thu-A-Paing-Hnin -Tat-Ma-Daw-Tha-Mya-Do-Ka-Kwe-Ye-Wun-Gyi-Chouk-Kyi-Saw-Maung-Tin-Pya-Chet*[1988년 9월 12일, 국민과군

에게 보내는 국방부 장관 쏘마웅의 제안]. Yan-Gon: Kye-Mon-Da-Din-Za-Daik-Hnin-Ga-Di-Yang-Da-Din-Za-Daikf [양공: 제몽신문사 & 가디언].

Pye, Lucian W. 1985. *Asian Power and Politics: The Cultural Dimensions of Authority*. Cambridge and London: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Scott, James C. 1972. "The Erosion of Patron-Client Bonds and Social Change in Rural Southeast Asia." *Journal of Asian Studies* 32(1): 5-38.

_____. 1976. *The Moral Economy of the Peasant: Rebellion and Subsistence in Southeast Asia*. 김춘동 역. 2004. 『농민의 도덕경제』. 서울: 아카넷.

Selth, Andrew. 2002. *Burma's Armed Forces: Power Without Glory*. Norwalk: EastBridge.

Steinberg, David I. 2001. *Burma: The State of Burma*. Washington, DC: Georgetown University Press.

_____. 2006. *Turmoil in Burma: Contested Legitimacies in Myanmar*. Norwalk: EastBridge.

The Irrawaddy. 2008. "Brig-Gen Kyaw Swe: A Man on the Way Up?" *The Irrawaddy* 16(1).

_____. 2005. "Does a Reshuffle Mean Anything at All For Burma." October 12.

Tin Maung Maung Tan. 2007. *State Dominance in Myanmar*. Singapore: ISEAS.

Win Min. 2008. "Looking Inside the Burmese Military." *Asian Survey* 48(6): 1018-1037.

<http://www.irrawaddy.org/aviewer.asp?a=447&z=14> (검색일: 2007.04.21)

http://www.irrawaddy.org/research_show.php?art_id=447 (검색일: 2007.04.21)

면접자 명단

Aung Zaw(2007/08/16) *The Irrawaddy* 편집장.

Tin Maung Maung Tan(2007/12/24) ISEAS(Singapore) Senior Fellow.

기타 익명 면접자

(2009. 9. 3 투고; 2009. 9. 29 심사; 2009. 10. 12 게재 확정)

<Abstract>

Conflict and Struggle at the Top Level of the
Burmese Armed Forces:
Involution of the Patron-Client Relationship

JANG, Jun Young
(Lecturer, Dept. of Myanmar, PUFS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at how the burmese armed forces sustain their balance of power in the factional struggle and reshuffle focusing on the patron-client relationship. Although neo-military junta has been intervening the political society as an institution since 1988 coup, the regime type is a kind of personal one because the dictator has an absolute power to decide any policy on the regular mechanism for the regime survival. With generalized personal ruling order, a patron-client relationship which stands for personal subordinate linkage is supported among the top level of the armed forces so that regime type of Myanmar strengthen personal one.

Power system, so called a contested clientelism, by three strong iron masks was weakened after the death of Ne Win who was the number one patron of the present armed forces. A contested clientelism seems to be back a monopolistic clientelism after the sack of the prime minister Khin Nyunt who was fully sponsored by Ne Win. In addition, the factional

feature has been changing from a positional duty to a functional one such as military responsibilities contrast to economic responsibilities since 2004. Therefore, the internal cleavage of the armed forces is only conflict for political resources.

Here we have two conclusions from this study. First, the military regime of Myanmar is managed in the frame of reciprocal patron-client relationship and a size of power pyramid is flexible followed by a subject of patron. Obviously military regime of Myanmar is not an integrated political unit but a political association which is composed of two or three exclusive power pyramids. Second, more power pyramids are stronger, more political resources gain in the armed forces. If this mechanism is not abided, patron of the power pyramid can be sacked and may be collapsed its pyramid.

There will be held a general election in 2010. A personal regime type strengthen in exploring of quasi civilian government, if the military junta will win in the general election. Hence, power and factional struggle among the military members will manage in the short term.

Key words: military junta, patron-client relationship, contested clientelism, monopolistic clientelism, power pyramid, 2010 general election, Myanmar